

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학습 목표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다.

주요 개념 사회 실재론 | 사회 유기체설 | 사회 명목론 | 사회 계약설

생각 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매운맛을 즐기는 편이다. 내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이나 부모님이 얼큰한 매운탕을 좋아하는 것 등은 개인적인 취향일까? 아니면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취향일까?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 ●●

사회 현상을 인식할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현상의 원인과 결과는 달라지며,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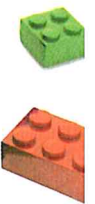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의 삶을 구속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개인은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일 뿐이다.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개인을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으로 보는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재론의 관점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실재론만으로 현상을 보려고 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개인을 사회의 종속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 실재론

블록의 색깔과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이 모여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블록 하나하나와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



더 알아보기

스펜서(Spencer, H.)의 사회 유기체설

스펜서는 그의 저서인 “종합 철학 체계”에서 사회를 생물 유기체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생물 유기체의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생물 유기체의 소멸은 필연적으로 각 기관 혹은 부분의 소멸을 의미하게 되는데, 개인도 이러한 유기체의 각 기관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즉,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와 생명 유기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사회나 유기체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가 증대되고, 크기의 증대에 따라 구조가 복잡해진다. 또한,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를 가져오며 집합체의 일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전체의 단위는 생존한다. 즉,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실재한다는 것이다.

* 사회 명목론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단순한 이름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개인들뿐이라고 본다. 사회란 개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속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속성을 의미하며 사회 자체로서의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 자체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춰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 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개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또한 개인이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 명목론만을 적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경우,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질서나 이익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활동 5



자연권 사상을 통해 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자연권 사상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자연권 사상에서는 개인이 태어나면 서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본다. 즉, 국가는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형적 전개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을 들 수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여기며,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라는 권리를 지키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다고 주장하였다. 왕권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기존의 왕권신수설과는 다른 원리로서, 결국 왕권도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대가로 ‘기꺼이’ 준 것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으므로 구성된 개개인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었으며 그 목적에 반할 때에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재산 등의 이유로 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게 되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결합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즉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이론은 국가를 통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의지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권 사상은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의 사상적 지도 이념이 되었다.

1 자연권 사상은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중 어느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2 **토의 활동** 국가가 나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의해 보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바람직한 관점 ●●

사회 명목론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관점이라면 사회 실재론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를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개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성격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 실재론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만을 적용하여 이해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관점만을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관점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적절하게 관점을 적용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상 속으로

인물 탐구

시사 산책

현장 탐방

햄버거 가게에서 나의 자유 의지는 실현되는가? Q

개인의 자유 의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발휘되는가? 과연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2002년 미국에서 10대들이 패스트푸드 업체인 M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들은 M사가 지나친 광고와 교묘한 판매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과식으로 유도하고 비만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M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의미가 있다.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면 점원이 묻는다. “900원만 더 내면 감자튀김과 콜라를 함께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별 고민 없이 “예.”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햄버거 하나만 주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햄버거 외에는 살 의도가 없었던 많은 사람이 그 말에 감자튀김과 콜라를 소비하게 된다.



햄버거 가게와 구매자

여기에는 나의 자유 의지가 작용한 것일까? 아니면 햄버거 세트를 팔기 위한 기업의 교묘한 판매 전략에 넘어간 것일까? 경제학자 갤브레이스(Galbraith, J.)는 자유 시장이라는 표현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조직되지 않은 소비는 없다.’고 했다. 기업이 광고와 마케팅 등으로 소비 의식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Q M사의 전략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한 청소년들과 M사의 전략에 넘어가 소비 행태를 결정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각각 말해 보자.



창현:

난 제임스 변호사가 헨리 영 살인 사건의 주범을 국가로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논리라면 독방에 갇혔던 사람들은 모두 살인범이 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상황이 같아도 인간은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희: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헨리 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결국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제임스 변호사의 노력과 재판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 다음은 영화 '일급 살인'의 내용과 이를 보고 나눈 두 사람의 대화이다. 이를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샌프란시스코 만에 위치한 바위섬에 엘커트레즈라는 감옥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 없이 어렵게 자란 헨리 영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마저 없다. 결국, 굶주린 여동생을 위해 단돈 5달러를 훔친 죄로 헨리 영은 이 감옥으로 보내지고, 감옥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에서 3년 동안 살게 된다. 헨리 영은 오랜 시간을 독방에서 보낸 결과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독방에서 나온 후 교도소 식당에서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 생각되는 한 남자를 살해한다.

이 살인 행위로 인해 헨리 영은 일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의 변호를 맡은 젊은 관선 변호사 제임스는, 헨리 영이 지난 3년 동안 지하 독방에서 비인간적이며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오랜 감옥 생활로 정신이 황폐해진 헨리 영은 황설수설하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제임스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나도 너처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제임스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헨리 영을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교도소와 정부라고 판단한다. 일급 살인을 한 것은 헨리 영이 아니라 감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인다. 재판 결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헨리 영의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되고 엘커트레즈 감옥은 폐쇄된다.

- 1 창현과 지희는 헨리 영의 범죄를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중 어느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말해 보자.
- 2 헨리 영의 범죄를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으로 볼 때 각각의 관점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 3 제임스는 헨리 영의 범죄를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중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고 했는지 설명해 보자.
- 4 제임스는 헨리 영을 옹호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재판에서 국가의 입장 혹은 헨리 영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론하는 글을 써 보자.
- 5 **토의 활동**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